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 6. 10.(월) 10:00

## 5 분 자 유 발 언

(진장명춘지구 노후도로 정비를 기대하며)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조문경 의원)

- 진장명촌지구 노후도로 정비를 기대하며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조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진장명촌지구의  
노후도로를 하루빨리 정비해 줄 것을  
북구청에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1998년 울산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사업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없게 됐고,  
이어 2019년 사업시행자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마저 파산하면서  
공정률 87% 상태에서 26년째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정비되지 않은  
일정 구역 안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적정 규모로 정비하고  
잔여 택지를 정비에 맞춰 그 구획과 형질을  
변경하는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구(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생긴 공공시설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이후부터 관할 시장 등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는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도로폭 20m 이상은 울산시에서,  
20m 미만은 북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의 파산으로 사업의 준공 및 환지처분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넘겨받을 방법이 요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장기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진장명촌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은 관리주체 없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른 빗발치는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는 복구가 매년 1억 원 정도의 긴급복구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소규모 보수를 시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사이 최근 울산시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하여 혹시 모를 감사상의 불이익조차 감수하며 10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복구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에서 평창리비에르 아파트까지 2.1km 구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김두겸 울산시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2년여에 걸친 백현조 시의원님의 예산 확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비사업은 도로폭 20m 이상인 주도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계된 이면도로의 유지보수가 병행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구청도 울산시처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장명촌지구 내 도로폭 20m 미만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법절차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적극 행정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청주시는 소송도 불사한 끝에 1992년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청주시의 사례처럼 진장명촌지구의 문제해결 역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분쟁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구청에서도 진장명촌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조합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결단을 내려 노후도로를 정비하기로 하였으니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시의 사업에 보조를 맞춰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장명촌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26년째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장명촌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